

1사1촌 현장 ④ ... 가산면 우금2리♥서울동부경찰서

포도봉지씌우기 연인원 300여명 지원

쌀·포도 등 농산물 판매·농촌문화 이해의場

500년이 넘는 큰 느티나무가 있어 느티나무 과, 꽃 화자를 써 괴화동마을이라고 부르는 가산면 우금2리는 원촌과 조촌으로 불려지는 집성촌으로 원주민 50여가구, 외부에서 유입된 50여가구 등 100여가구 35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은 수원산 자락 아래로 형성된 옥금수 계곡은 물이 맑아 여름철 피서객들이 물놀이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박성호
경찰서장



원근호
우금2리 이장

우금2리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은 포도로 10만평에서 1년에 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6월21일 서울동부경찰서(대표 박성호)와 우금2리(대표 원근호)의 괴화동 마을간의 1사1촌 자매결연식을 맺고 본격적인 교류에 나섰다. 서울동부경찰서는 관직, 성품, 품대분, 중앙 경찰서로 구성돼 있다. 우금2리 원근호(47·사진)이장은 서울동부경찰서와 1사1촌 자매결연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 "포도농가에서 봉지씌우기로 일손이 부족할 때 서울동부경찰서에서 연인원 300여명이 지원돼 포도봉지씌우기를 도와 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 전에는 일기적인 모두를 동원해서 포도봉지씌우기에 나섰는데 경찰서 직원들이 찾아와 일손을 돕고 있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또 지난해 8월31일에는 경찰관과 의무경찰대원 50여명으로 이뤄진 서울경찰악대가 포천반원아트홀에서 농촌사랑 한마음 음악

회를 열어 이 마을 주민 60여명이 관람하기도 해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해준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날 음악회에서 경찰악대는 비틀스의 'Hey Jude', 윤도현 밴드의 '사랑 Two' 등 국내외 유명 가요를 연주했으며 경찰 연극단 '호루라기 연극단'이 콩트 '신촌향전'과 팸플릿, 어린이를 위한 요요공연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 서울동부경찰서는 각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이용하고 있는 쌀을 이곳 우금2리 마을에서 생산된 해솔촌 쌀을 이용하고 있는 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우금2리 괴화동마을은 공기가 좋고 물이 좋아 좋은 쌀이 생산되고 있다고 원 이장은 밝히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에도 이랑곳하지 않고 포도봉지씌우기에 도움을 준 서울동부경찰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우금2리에서는 포도 5kg 65박스를 선물로 전달했다. 서울동부경찰서는 감사하는 뜻으로 홈페이지에 포도판매에 대한 글을 올려 5kg 200박스, 10kg 70박스를 주문하기도 해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포천 원주의 원조인 가산면 우금2리는 원주 원씨 일가의 집성

촌으로 25농가, 풍양 조씨 일가의 집성촌 20여농가의 원주민들이 대대로 살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20여년간 포도농사를 지어온 원근호 이장은 "이곳 포도는 맛이 좋아 직접판매가 80%이며 시중에 나가는 것은 2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포도가 맛이 있는 것은 배수가 잘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올해는 이곳에서 생산하는 해솔촌 포도가 한국일보 제정 농업대상을 차지해 더욱 유명해졌다.

원 이장은 "서울동부경찰서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 포도봉지씌우기를 도와주고 있어 매우 감사하다"며 "일손돕기도 중요하지만 판매와 홍보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원 이장은 서울동부경찰서

직원들이 농촌에 일손돕기에 참여하면서도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도시락을 갖고 방문하는 점 등도 고마운 일이며 현재는 도움만 받는 입장이라고 했다. 10월21일 경찰의 날에도 마을 부녀회장과 함께 초대를 받았다. 원 이장은 농촌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경찰서 자매결연을 담당하고 있는 관직경찰서 관계자는 "특별히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농촌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농촌을 접해보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해가 바뀔 때마다 담당직원들이 현지에서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서울동부경찰서 직원들이 가산면 우금2리 포도밭으로 포도봉지씌우기 작업을 위해 작업자를 이용해 출발하고 있다.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106 뉴 오리랜드

유황오리 요리 전문점



대표 윤성기

고모 저수지와 예로부터 산삼이 많이 나온다는 죽염산이 한데 어울려 천혜의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고모리! 인근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도 자주 찾고있는 포천의 명소로 사랑 받고 있다. 소흘을 송우리에서 송우레딩홀을 지나 고모리 입구(직도면에서는 끝부분)에 자리잡고 있는 뉴 오리랜드(구 오리랜드)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620-4 대표 윤성기).

지난 2월 문을 연 뉴 오리랜드는 오리의 색다

린월, 산후조리, 환자회복, 허약체질 개선에도 좋은 식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개업부터 현재까지 뉴 오리랜드는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신념으로 한번 찾아온 고객들이 꼭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윤 대표 부부가 직접 운영, 음식이 만들어져 나오는 주방부터 청결을 생활화 한 후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있다.

유황오리 또한 4인 기준에 1킬로 5백 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가격은 3만원을 받고 있다.

그밖에 밀반찬으로는 참나물 무침과 씀무우, 백김치를 상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직접 주방에서 윤 대표 부부가 요리함으로써 신선도와 청결에 대한 부분도 돌보이고 있다.

현재 뉴 오리랜드는 개업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양질의 재료사용과 변함 없는 서비스로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직장 회식이나 단체 모임, 비즈니스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조성해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평일에는 주로 인근지역 고객들이 찾아오는 횡수가 많고 있으며 주말에는 고객 대부분이 서울이나 외지에서 찾아오는 고객들이라고 한다.

모든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제일 중요 양·질·맛에서 뒤지지 않는 음식으로 보답

른 맛을 고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개접이래 줄곧 노력해 오고 있다. 예전에 비해 현재 고객들은 오리고기를 건강식으로 여기고 있어 오로지 양질의 유황오리 고기만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다.

전날 나무에서 유황을 먹여 사육한 고품질 오리만을 선정해 찾는 고객들의 식단에 제공하고 있다. 유황을 먹여온 오리가 우리 품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유황오리는 잦은 술·담배로 인한 탁한 피를 맑게 해주는 청혈 작용을 하는데 뛰어나다고 전해오고 있다.

또한 정력증강과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 불포화 지방산의 함유량이 많아 여성들의 피부미용에도 그만이며 고단백 고열량 식품으로

윤 대표는 "예전부터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왔다"며 "그동안 고객들의 사랑에 양, 질, 맛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음식으로 보답 할 것"을 강조했다.

뉴 오리랜드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은 휴일이다. 윤 대표의 적극성과 변함 없는 고객사랑으로 운영되고 있는 뉴 오리랜드가 이 지역에서 으뜸가는 오리로소 전문점으로 성장하길 거듭 기대해 본다.

문의 031)541-5289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지난 2월 문을 연 뉴 오리랜드는 오리의 색다른 맛을 고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개접이래 줄곧 노력해 오고 있다.

재테크 ⑧

재무설계는 인생설계다

지난주에 소개된 신혼부부들 첫 상담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단순히 재무컨설턴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인생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현실에 부딪혀 갈등하고 좌절한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 적도 없어서 우왕좌왕하기 일쑤다. 겉에서 객관적인 조언을 해 줄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 끝에 두 부부를 편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상담하기로 했다. 재무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정의 지속적인 소득창출이다. 이것은 직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직업이 불안정하다면 재무계획이 중간에 중단되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편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수입

이 적은 편이라 이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소득이 높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부인은 아이가 생기면 학원강사를 그만두고 쉬고 싶다고 한다. 만일 이처럼 직업적 확신 없이 산다면 이 가정의 소득상황은 말지 않는 미래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때문에 두 사람은 먼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한다. 남편은 사회복지사가 원래 자신의 꿈이었다고 말했다. 단지 소득과 비전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함께 상담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글을 쓴다거나, 강연을 하는 전문가가 되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뜻이 모아지고 이를 위해 앞으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기로 했다. 부인은 재능이 생기더라도 공부와 같은 자신의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아이가 생기면 전까지 눈송이나 영어

등 자신의 전문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강좌를 듣기로 했다. 이렇게 인생계획을 세우자 두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

러한 확신 속에서 재무계획이 세워져야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두 부부는 지출성향이 높지 않아 안심이 되는 면도 있지만 앞으로 아기가 생길 것에 대비해 최대한 절약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세 번째 단계는 긴급예비비를 마련해야 한다. 어느 가정든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이를 위해 한 달 생활비의 3배에서 6배 정도의 자금이 예비비로 준비되어야 한다. 바로 인출이 가능하면서도 이자소득이 생기는 MMF나 CMA 통장을 만들기로 했다. 네 번째 단계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보험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보장은 폭넓게, 긴 기간 동안,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부의 보장

내용 분석결과 비용 대비 충분한 보장이 부족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 보장의 폭이 넓게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노후자금 마련이다. 젊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누구든 늙게 되며, 소득 없이 보내야 할 노후 생활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적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소득 수준에 비해 부담이 커서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재테크를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후부터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다음에 살펴보자.

재무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합니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납부(확정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서 2번은 납부하며,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납부(예정신고, 확정신고)하는 것입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1~3월분거래)은 4월 1일~4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기간(1~6월분거래)은 7월 1일~7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7~9월분거래)은 10월 1일~10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기간(7~12월분거래)은 1월 1일~1월 25일까지

* 외국법인은 신고기간 종료후 50일 이내 신고

▶간이과세자는 2004. 1. 1 이후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가 폐지되어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는 개업후 처음으로 신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개업일부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업일이 예정

신고기간 중에 해당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사업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사에서 직전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고지서)에 의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및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를 생략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자 중 예정고지서를 고지 받은 사업지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예정고지세액 납부 대신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공장 지붕 보수작업 중 슬레이트 파손으로 추락



재해발생상황도

▲재해개요
지붕 보강 및 슬레이트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 지붕위에 올려진 C형강(100×50×20×2.0mm-20M)을 지붕 건너편으로 옮기는 작업 중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면서 7m가량 공장내부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동종재해 예방대책
-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방망 설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성직자도 가입 대상자인데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신고하면 세금내야 하기 때문

천주교만 일부가입 ... 장기대책 필요

흔히 성직자는 가입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나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성직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자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천주교 서울교구와 인천교구는 지난 2000년 아예 단체로 사업장가입자로 등록했다. 그 결과 두 교구 소속 신부와 수녀들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다. 이들은 자신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원천징하고 있다. 목사와 스님들은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천주교는 세금을 내지 않

기 때문에 국제청 자료를 통해 이들 소득을 추정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이들이 '수입이 없다'고 하면 공단 측은 납부예의 자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목사들은 감리교 등 각 교단별로 총회에서 따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 목회 활동을 통해 노후가 보장될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계층 모두 가입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오랫동안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를 조사해 온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용하 부 연구위원 설명이다. 한편 각 종교계는 나름대로

성직자들 노후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종단과 교단은 은퇴 성직자들의 노후보장제도를 갖추기 위해 각종 수익사업을 시행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자체적인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교단은 개인부담금 액수와 회수를 늘리는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은퇴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현재 마련해둔 기금은 낮은 금리로 인해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이중고를 처해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서 031-544-8700